

제2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

2024. 12. 20.(금) 10:00

5 분 자 유 발 언

(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.)

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

(박재완 의원)

-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-

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!

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!

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!

반갑습니다! 농소1동,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
더불어민주당 박재완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
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

국회가 확정 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,
정부안 대비 4조 1천억 원이나 삭감된
673조 3천억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.

이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.

특히 예비비 2조 4천억 원,

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등

불필요한 예산이 과감히 삭감되었습니다.

그런데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.
정부가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입니다.
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원, 해외 순방비로
532억 원을 사용한 것이 그 예입니다.
이것이 과연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
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?

구청장님,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!
예산은 결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.
예산 하나하나가 우리 구민의
피와 땀이 어린 세금입니다.
지금 우리 지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.

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.
이러한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나 보여주기식 사업에
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.

이에 우리 의회는 앞장서서
구청장을 비롯한 의장, 부의장, 상임위원장의
업무추진비 예산을 10% 삭감했습니다.

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.

모든 예산은 반드시 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장기적인 복구 발전을 위한 사업, 구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합니다.

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

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
한 푼의 예산이라도 불필요한 낭비가 있다면
철저히 감시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.

예산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
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
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.

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
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

예산은 우리 구의 미래이자
구민의 삶과 직결된 것입니다.

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.

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

북구 주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!

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

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

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